

체험 통해 내 안에 있는 영재성 찾는다

전북도교육청 '2016 꿈돋움 영재교육 한마당' 8월6일 전주화산체육관 개최

'체험, 학습을 통해 내 인의 영재성을 찾아주세요.'

도내 유·초·중·고 학생들의 영재성을 찾아 키워주는 즐거운 체험 한마당이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16 꿈돋움 영재교육 한마당'을 다음달 6일 오전 10시부터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꿈돋움 영재교육'은 과학, 수학, 인문, 예체능 등 14개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감

재적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전공교과, 인문소양, 연상·체험학습 등의 영재교육을 제공해 꿈을 키워주고, 자신의 재능과 수준에 맞는 심화된 영재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진북형 영재교육이다.

이 행사는 도내 유·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진행부스 3개, 영재교실 부스 12개, 영재교육 부스 18개 등 총 33개의 부스에서 수업과

체험활동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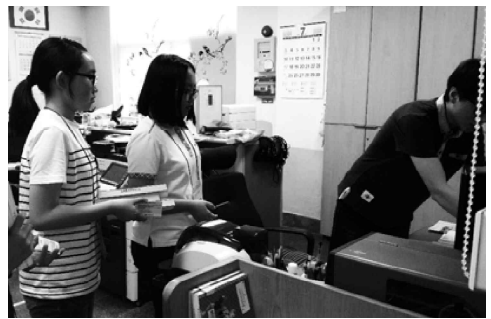
영재교실 부스에서는 과학·수학·발명·정보·언어·전문·인문 등 영역별 영재수업을 30분으로 압축해 총 60회 운영되며, 회장 참여인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해 수업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영재교육 부스에서는 홍보·상담·과학·수학·예술·정보·발명·창의성·리더십 등 다양한 영역의 영재성을 판단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5개 이상의 영재교실 및 체험부스에 참여한 뒤 체험활동보고서를 작성하면 체험활동 확인서도 발급해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아이들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영재교육행사는 우리 아이들의 숨겨진 영재성을 찾아주고 그 영재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학기제 양질의 진로직업체험처 제공

전북도교육청, 진로체험활동 MOU 체결 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각 지자체, 지방공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과 함께 도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14일 오후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진로직업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MOU(업무협약) 체결기관 담당자 및 담당장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도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

청과 진로직업체험처 업무협약을 맺은 40여 개 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사례를 공유하고, 체험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학교교사와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사례 등도

공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체험처를 제공하고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각 지자체, 지방공기업, 대학들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체험처와 학교 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교육수요자와 진로직업체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산고 내부형 공모교장 임용후보 장경덕 전주유림중교사 선발

전라북도교육청은 고산고등학교 내부형 공모교장 최종 임용후보대상자로 장경덕(55) 전주유림중학교 교사를 선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장경덕 교장은 임용후보대상자는 순창북중 등에 신규임용된 후 도내 6개 중등학교에서 27년간을 교사로 근무하였다.

고산고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교장 후보로 지정되어 지난달 8~20일 공모 기간에 7명의 교사가 지원했으며, 고산고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는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상호토론을 통해 3명을 추천했다.

이후 도교육청 2차 심사에서 서류심사와 심층면담을 거쳐 장경덕 교사를 임용후보대상자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임용 제청할 예정이다. 8월 중순경 승인을 받아 최종 임명하게 된다.

나의 꿈은 공무원

장수교육지원청 중학생 대상 진로직업체험

장수교육지원청은 7월 13일 중일 프로그램을 교육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을 운영하였다.

천천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체험은 첫시간에 공무원이 되기 위한 품성과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 배우고 둘째 시간에는 실제 공무원서를 작성해 보고, 셋째 시간에는

교육지원청과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오후에는 장수공공도서관에서 사서의 역할에 대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 체험, WFE센터에서는 MBTI검사를 통해 성격 유형과 상담활동을 진행하였다.

전북지역 학생들의 수학학습 상담 도모

수학클리닉 기초과정 직무연수 실시



전북지역 학생들의 수학학습 및 심리적 영역에 관한 수학교사들의 상담 역량 강화하기 위한 수학클리닉 기초과정 직무연수(수) 전라북도교육청교육관 내에 설치된 전북수학학

습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직무연수는 교사들의 소용 및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학교사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동 15명, 중동 15명으로 교사들을 모집하였다.

수학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55명으로 확대하여 총 16시간의 직무연수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수를 이수한 수학교사들은 11월에 한국과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수학클리닉 일반연수에 신청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학클리닉 심화연수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지난 8월에 한국과학재단 관계자의 '수학클리닉의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9일에는 도내 수학교사들의 수학클리닉 사례 발표,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심치 및 동기를 높이는 대화법' 등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실시하였다.

더불어 이번 주 토요일인 16일에는 '도형 상담기법'과 '상담코칭기법'의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수학학습센터 관계자는 "이번 직무연수는 수학 선생님들의 수학학습 상담 이론의 기초 내용을 통해 기본적인 상담 기술 및 방법을 익히고,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심리 진단의 이해가 향상될 것"이라며 "선생님들께서 수업과 학생 상담 등 바쁜 시간에도 끝없이 아닌 토요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학생 현상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가족과 함께하는 샌드아트 체험 마련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100-5 가족 박물관' 회원들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모래와 빛의 예술(샌드아트) 공연과 체험활동을 7월 30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

샌드아트는 최근 방송을 통해 소개된 새로운 예술형태로, 모래판 위에 그림을 그리고 지우는 과정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번 공연은 많이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를 주제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과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공연 이후에는 자신들만의 생각과 상상을 창의적인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체험 활동도 마련하며, 가족 간에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더듬 학생 지원 강화

전북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위한 학부모 재능기부단 운영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학부모 재능기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학부모 재능기부단의 학습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원 방안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학부모 재능기부단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8월부터 상담 자원활동가 수료자 중 기초학력 재능기부 희망자 각 지역별 100명씩, 총 300명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군산, 익산에서 한 달간 운영된다. 총 5회에 걸쳐 2시간씩 학습상담 및 학습 더듬 학생 지도교육을 받는다.

80%이상 교육 참여시 수료증을 부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부모 재능기부단으로 위촉한다.

연수 신청자는 일민이 전북대 교수 등 전문강사들이 초, 중학생의 학습더듬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방법, 검사지를 활용한 초기 수학교육 방법, 그림동화책을 활용한 읽기지도 사례, 학습플래너를 활용한 학습상담의 실제, 학습더듬학생 학습지도사례 등을 교육받는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7월 13일(수)부터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arents.jbe.go.kr>)에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 재능기부단을 위한 활동기회를 제공해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 재능기부를 통해 기초학력 더듬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한다"고 말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여름방학 '도서관 1박2일 캠프' 운영

남원교육문화회관은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22-23일 '더위야! 시원한 도서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독서문화행사를 준비하였다. 도서관 1박2일 캠프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책을 매개로 하여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책 속 주인공 캐리커처 티셔츠

만들기 ▲모기퇴치 말뚝 만들기 ▲도서관 드림팀(독서퀴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야식 만들기 ▲자율독서 및 신야영화상상 등이 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총 30명)이며,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여름방학기간동안 관내 학생들을 위하여 '도서관 1박2일 캠프' 외에도 과학을 주제로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최첨단 스마트도서관으로! **확~** 우리학교 도서관이 바뀝니다!

아 리학 스마트 체험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공간이 펼쳐집니다.
- 동영상과 체험도서, e-book으로 헌정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 학교 도서관은 물론 집에서든 손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체험 상담

유명회사 **세화테크**

대표이사 이 지 연

010-5488-2617

seohatech@naver.com

TEL: 063-282-9817

FAX: 063-282-9817

책이 - 오!

대한민국서점